

해외 축산선진국들의 기술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축산의 현재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국양계박람회의 개최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더없이 의의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때 일수록 보다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우리 안팎의 시장정보와 축산정보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축산 현장에서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외부의 정보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용하느냐 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축협에서도 해외통상관계등을 전담할 해외 개발실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통상 마찰을 해소키 위한 노력과 국내외 축산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축산업 분야에서는 해외 축산정보 수집 및 보급이나 우리 축산

의 국제화를 위한 기회와 노력이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뜻에서 해외 축산선진국들의 기술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축산의 현재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국양계 박람회의 개최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더없이 의의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양계인들을 비롯한 축산인들은 지난 '91년 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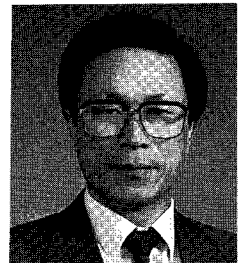
두번째가 되는 이번 양계박람회에는 더욱 많은 나라, 다양한 단체가 참가하여 우리 양계산업이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리 축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훌륭한 행사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93년 한국양계박람회가 우리 양계농민 뿐 만 아니라 우리 축산인 모두에게 해외축산을 살피고 수용하는 학습의 장으로써 또 한국의 양계산업, 축산업을 해외에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써 우리 축산의 국제화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뜻깊은 잔치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93한국양계 박람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애쓰신 양계농민, 양계협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드리면서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축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계기로 승화되길...



양 창 옥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 회장

거도 어려운 환경속에서 양계박람회도 개최된다는 것을 경축하는 바입니다. 2년전, 제1회 양계박람회가 열렸을때 우리는 기쁜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축산업도 팔목할만한 성장을 했다는 것과 여타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입 축산기자재가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무사안일에 빠져있던 우리나라 축산기자재 업계에 경종을 불러일으켰으며 축산기자재 행정의 공백을 새삼 깨우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눈물나는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한국 축산기자재협회를 결성하였으며 '92년 제1회 SIEMSTA에 국산 축산기자재를 출품하여 국무총리상과 농림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양축농가 및 축산관련인사들에게 축산기자재 국산품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작년 12월, 한국축산기자재협회는 정부 및 축산관련 단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하에 드디어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박람회라는 매체를 통하여 축산 각 부문이 공동보조를 맞추는데 힘입은 바 크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축산업이 국민의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하는 홍보의 역할 또한 클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박람회라는 매체를 통하여 축산 각 부문이 공동보조를 맞추는데 힘입은 바 크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축산업이 국민의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하는 홍보의 역할 또한 클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양계박람회를 통하여 축산업이 어느 한쪽만 관심이 치중되어 발전하는 기형의 틀을 깨뜨려 사료, 방역, 사양, 유통, 축산기자재가 고른 균형의 조화미를 살리고 그야말로 우리 양축농가에게 희망을 주는 기술농업, 고품질농업, 지속농업, 수출농업의

신농정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양계박람회는 우리 축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축산박람회로 확대 발전하는 계기로 승화되기를 빌어봅니다. 이는 우리 축산물이 쾌적한 양축농가의 시설자동화와 효과적인 사양관리로 경제적인 국민식품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진다면 축산 유관 산업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며 얼마든지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우리 축산업 전체의 현안문제를 재거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중인 축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농업이 싱싱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구조적으로 독립시켜 농업행정과 병행될 수 있도록 축산청이 발족되고 축산기자재검사소 등이 설치되어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해 봅니다.